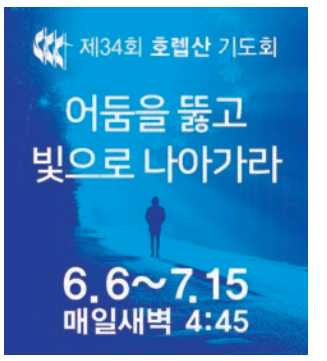
광림교회
KWANGLIM CHURCH
등록번호 다-467 / 발행인 김정석
발행처 광림교회 서울 강남구
논현로 175길 49 TEL 2056-5600
www.klmc.church

광림 뉴스레터
KWANGLIM NEWSLETTER



"어둠을 뚫고 빛으로 나아가라"

제34회 호렙산 기도회, 6월 6일(월)~7월 15일(금) 새벽 4시 45분 40일간 진행

간절한 부르짖음과 뜨거운 찬양이 있는 곳, 호렙의 거룩한 성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대장정이 시작되었다. 2022년 <제34회 호렙산 기도회>가 6월 6일(월)~7월 15일(금)까지 40일 동안 매일 새벽 4시 45분 광림교회 대예배실, 광림남교회, 광림서교회, 광림북교회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많은 성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나와 호렙산의 불타는 떨기나무로 인도하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삶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호렙산기도회는 광림교회 홈페이지(www.klmc.church)와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국내와 전세계에 실시간으로 전해져 성령이 역사하는 기도의 열기를 더하고 있다.

이번 기도회 주제는 <어둠을 뚫고 빛으로 나아가라>이며 성경말씀은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시 36:9)이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김정석 담임목사는 40일간 새벽마다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새벽은 절망과 좌절, 탈진한 상태의 삶의 끝자락이지만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실 때 그 곳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년 6개월간 코로나19의 어둡고 캄캄한 긴 터널을 지나 생명과 진리의 빛 되신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소망과 용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자"고 강조했다.
성도들은 매일 새벽 세계와 열방, 나라와 민족, 교회와 가정을 위한 공동 기도 제목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다.

매주 토요일에는 교회학교의 <가족과 함께 오르는 호렙산>이 진행되고 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전에 나와 기도회 열기를 체험하고 기도 응답의 감격을 경험하며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고 있다. 출석 스탬프 찍기, 안수 기도회, 등반대원 임명식 등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청년부는 여름 교육선교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거룩한 생활 루틴이 선발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믿음의 청년들이 새벽에 기도하는 거룩한 삶의 습관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선발대회 참가비 일부는 취약계층을 위한 선풍기 구입에 사용할 예정이다.

청장년부는 매주 토요일 어린 자녀들과 함께 <호렙산 인증 미션>에 참여해 가족과 사진을 찍으며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고, 7월 9일(토)에 '소망사진관'을 열어 가족과 함께 오른 호렙산 기도회 기념사진을 성도들에게 선물한다.

40일간 기도회가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헌신의 손길이 있다. 성도들을 반갑게 맞으며 주차봉사에 힘쓰는 기드온선교회, 성도들의 안전한 예배를 돕는 예배위원회, 온라인 생방송을 송출하는 방송실과 카메라 봉사, 예배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위원회, 은혜로운 찬양으로 기도를 돕는 반주자 등 묵묵히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있기에 제34회 호렙산 기도회는 더욱 뜨거운 성령의 은혜로 채워지고 있다.

소현수 기자

2 광림의 강단 영적인 위기를 회복의 기회로 삼아라
3 광림 스토리 아펜젤러세계선교센터
4 하나님을 만나다 나사렛성전 리모델링
5 다음세대 거룩한 루틴이 선발대회
7 믿음의 현장 아펜젤러 선교사(7)
8 특집 한눈에 명화로 보는 신약성경

"영적인 위기를 회복의 기회로 삼아라"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시편 51편 12절)

본문 말씀은 다윗의 시편으로,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는 자신의 죄로 인해 영적인 위기를 만난 다윗의 간절한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늘 평안했던 것은 아닙니다. 다윗에게는 세 가지의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책임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맡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에 대한 책임감이 그에게는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죄책감입니다. 다윗에게는 밧세바와 간음한 죄에 대한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배신감입니다.
요압 장군과 아들 압살롬의 배신 등 믿었던 이들로부터의 외면당한 배신감이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무거운 짐들로 인해 영적인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위대한 점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적인 도움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위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영적인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첫째, 은혜 안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1~2절)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목적에 따라 바로 가지 못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라는 고백은 자신이 죄 앞에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었으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겸손히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죄 가운데 태어난 존재이고, 여전히 죄인이며 앞으로도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그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이는 자신에게 성결한 마음과 무엇이 죄인지를 알 수 있는 마음을 달라는 것입니다. 즉 이기적이고 세속적으로 살았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옮겨지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더 나아가 영혼의 자유함을 허락해주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운 자로 칭함(칭의)을 받으면 죄의 문제와 죄책감의 문제가 모두 해결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셨음을 고백하지만 여전히 죄책감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책감까지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과 목적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1편 1~12절

1.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2.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3.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4.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5.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여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6.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7.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8.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 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9.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10.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1.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12.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둘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수많은 고난을 통해 충분히 훈련된 사람이었기에, 책임감의 무거운 짐이나 배신감의 고통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적들 앞에서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라면 그 어떤 배신의 순간에도 전혀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자 삶의 의미를 잃었고, 삶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 찼습니다.
다윗의 탁월한 점은 불안과 두려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악 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슬퍼했습니다. 그는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거나 버려지는 것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많은 전쟁과 고통, 삶의 순간마다 자신을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죄로 인해 얼굴을 들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덮습니다. 자신의 죄가 은혜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는 것은 신앙이 없는 자의 생각입니다.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겸손과 책임이 아니라 교만과 불신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깨끗하게 되기를 원했던 것은 그에게 영적 민감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 앞에서는 자존심도 필요 없고, 다른 이들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죄든지 생각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모든 죄책감을 벗어버리고 참된 기쁨과 평안을 허락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셋째, 구원의 즐거움을 기대해야 합니다.

희망은 막연한 기대이지만, 소망은 약속 위에 근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희망이 아니라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구원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12절에서 다윗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구원의 기쁨이 회복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죄는 슬프고, 어두우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하지만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구원의 기쁨과 참된 평안이 넘쳐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121편 1~2절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소망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새롭게 하시며 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광림교회 담임목사 김 정 석
kwanglim-sp@hanmail.net

김정석 담임목사의 설교 CD와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강의 CD는 광림교회 빛의숲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전화 | 02-2056-5771

선교사 추모의 벽 제막식 거행

6월 10일(금) 오후 2시 아펜젤러선교센터에서

아펜젤러 선교사 순직 120주년을 맞아 6월 10일(금) 오후 2시 아펜젤러선교센터에서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사 추모의 벽 제막식이 열렸다.

제막식에 앞선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김정석 감독(감리회 선교국위원장)은 '한알의 밀알'(요 12:24)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먼저 낯선 타지에서 복음을 전하다 선교하신 선교사님을 기릴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한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을 때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된다. 희생한 만큼 더 큰 결실을 보는 것이다. 또한 떠밀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먼저 스스로를 버릴 때 풍성한 역사를 이룰 수 있다. 그리고 어떠한 여건에서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꽃피울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서 아펜젤러선교센터의 센터장인 이상훈 목사는 경과보고를 통해 "1986년 선교사후원 규약이 제정된 후 해외선교사가 파송된 이래 32명의 선교사들이 별세하였다. 그래서 아펜젤러 선교사 순직 120주기를 맞아 광림교회의 후원으로 추모의 벽 제막식을 갖게 되었다. 본 건물 1층 우측벽에 명패를 부착하여 그분들의 희생과 노고를 치하하고 아울러 입구 양측에 한국감리교선교사 추모지석과 아펜젤러선교사 이래로 한국에서 사역하신 640여명의 미국감리회선교사를 기억하는 추모지석을 세우게 되었다"고 했다.

예배 후 1층 로비에서 '아펜젤러선교사 순직 120주년 기념명판'제막식을 한 데 이어 현관 입구에서 별세 선교사들에 대한 <추모의 벽> 제막식을 거행하였다. 또한 국내외 선교사들을 기념하는 기림비를 참석자에게 공개하고 가족들이 그 위에 헌화하는 순서를 가졌다.

이날은 선교사들을 추모하는 행사인 만큼 유족들이 많이 참석하여, 예배와 제막식에서 돌아가신 분에 대한 추모의 글을 낭송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펜젤러선교센터는 지방학생들의 기숙사인 인우학사로 지난해 11월 광림교회의 후원으로 리모델링을 하여 선교사들을 위한 안식과 재충전의 장소로 탈바꿈하게 되어, 지난 7개월동안 25개국의 80여 선교사 가정의 117명이 다녀갔거나 현재 머물고 있다.

이득섭 기자

예배 안내를 돕는 교회 정문 LED 전광판

역동적인 동영상 메시지로 예배·상담안내, 교회 행사 전달

교회의 사명은 성도들이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돕는데 있다. 광림교회에 들어서면 우뚝 솟은 웅장한 교회 건물과 십자가가 눈길을 끌지만 가장 먼저 교회 입구에 설치된 예배 안내를 돕는 LED 전광판을 마주 대하게 된다.

예배안내, 교회 행사 등 다채로운 메시지들이 오가는 이들에게 밤낮으로 시선을 사로잡는다.

광림교회 정문 왼쪽에 위치한 LED 문자열 전광판은 노후와 고장으로 인해 지난 몇 개월간 작동하지 않은 채 꺼져있었다.

4개월간의 시장조사를 거쳐 LED 전광판을 최신 모델로 교체하는 작업이 5월 말 진행되었다. 이전 LED 전광판은 오각형 모양으로 픽셀 간격이 10mm가 넘어 정교함이 떨어지고 흑백으로만 구현되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새롭게 설치된 LED 전광판은 직사각형(2.35M×1M)이며 픽셀 간격이 4mm로서 해상도가 훨씬 뛰어나며, 다양한 칼라 이미지 구현이 가능해졌다. 동영상, 이미지, 텍스트, GIF 등 원하는 콘텐츠를 간단한 조작을 통해 쉽게 표출할 수도 있다.

현재 디자인 및 서체, 동영상 구현을 위한 메뉴얼 개발이 진행 중에 있으며, 6월 말경에는 여러 가지 교회 행사가 역동적으로 구현되는 생생한 LED 전광판을 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LED 전광판은 성도들을 예배의 승리자로 이끄는 문화 전달 매체로 자리매김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위상을 높이고 IT 시대를 이끌어가는 선교 사역의 한축을 담당하며 교회 앞을 오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령하는 메신저 역할까지 담당하게 될 것이다.

유병권 기자

포토 뉴스

제34회 호렙산기도회
제34회 호렙산기도회가 6월 5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호렙산 기도회 주제
"어둠을 뚫고 빛으로 나아가라"
(시 36:9)

기도의 벽
본당 로비에는기도의 벽이 세워져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채워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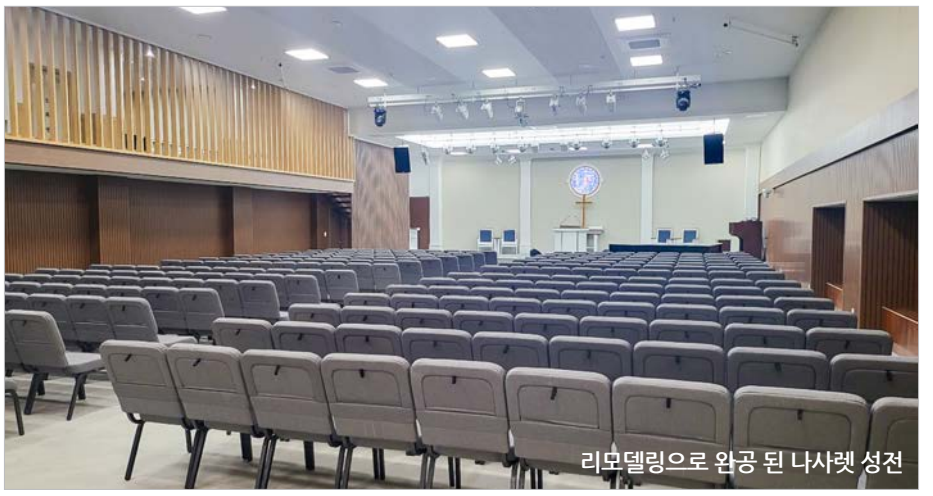
담임목사 동정

6/3	한국군선교연합회 이사간담회
	충청연회 평신도수련회
6/5	성령강림주일
	한사랑교회 장로취임예배
6/6	제34회 호렙산 기도회 개회
6/7,8	서울남연회 평신도 권역별간담회
6/8	한국로잔위원회
6/9	서울남연회부흥단 초청간담회
	문경지방 교역자회 교회 탐방
	교계지도자모임
6/10	서울남연회 실행부위원회
	아펜젤러선교센터 선교사 추모의 벽 제막식

광림교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www.klmc.church

〈나사렛 성전〉 리모델링으로 새롭게 변화

중등부 예배실, 청년부와 청장년부, 성인 교육 위한 다목적 시설



리모델링으로 완공 된 나사렛 성전

두란노 강의실

광림교회 창립 70주년을 준비하며 본당 지하 2층에 있는 나사렛 성전이 새롭게 변화되었다. 중등부 예배실과 분반실로 사용되어온 나사렛 성전은 올해 1월부터 약 4개월의 공사 기간을 거쳐 리모델링 되었다. 지난 5월 22일(주일) 나사렛 성전 리모델링 테이프 커팅식이 진행되었으며 미국 버지니아 연회 루이스 감독이 함께했다.

1980년 초 광림교회 일대의 개발과 더불어 성도들의 적극적인 전도로 인해 교인 수가 급증하게 되었다. 부모와 함께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자녀가 늘어나면서 학생들에게 더 바람직한 기독교 교육을 하기 위해 본당 옆에 900여 평 규모의 교육관을 건립하게 되었다. 교육관은 1984년 9월 8일 기공 후 1985년 10월에 완공되었으며, 본당 지하에는 다목적 계단강의실(현 두란노 강의실)과 체육관(현 나사렛 성전)을 겸한 공연장이 마련되었다. 당시 '교회 안의 체육관'이라는 획기적인 발상은 교회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고, 광림교회는 지역 커뮤니티센터로의 역할을 감당하며 열린 교회로써 이웃에게 한 발 더 다가가게 되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학교를 비롯한 사회 곳곳에 실내 체육 시설이 생겨나기 시작하자 광림교회는 체육관으로 쓰이던 이곳을 다목적 예배실로 변경하여 '나사렛 예배실'이라 칭하고 교육과 행사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였다. 나사렛 성전은 중등부 예배실, 전도학교 교육 장소, 각종 세미나와 지방회, 새벽기도회 장소 등으로 사용됐으며 예배실 뿐 아니라 10개의 분반실을 갖춰 각종 소그룹모임까지 아우를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됐다.
세월이 지남에 따라 예배실, 각종 영상 장비와 조명, 음향 장비 등의 노후화로 전면 보수의 필요성이 요구되었고, 여러 리서치 기관을 통해 새로운 교육 공간을 위한 연구 후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다.

새롭게 바뀐 나사렛 성전의 전면 강단부는 교회의 전통적인 제단 디자인을 사용하여 전통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나사렛 성전의 강단 성구는 8선교구 가정에서 봉헌하였다. 또, 생방송 촬영과 영상 송출을 하기에 적합한 방송 시설도 갖추게 되었다. 분반실은 집중력을 높일 수 있도록 무늬목 방음 패널로 마감하였고, 각 방에는 개별 냉난방 시설과 공기 청정 시스템을 설치하였다. 또 성전 뒤쪽 복도를 통해 분반실로 이동할 수 있도록 출입구를 설치하였다. 리모델링 전에는 장천홀과 이어지는 통로가 나사렛 성전 예배실을 가로질러 있어 불편함이 있었으나 공사 후 통로가 성전 후면에 생겨 이용이 편리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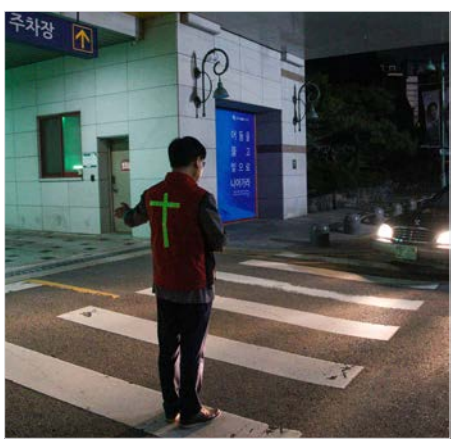
총 300석 규모의 예배 공간으로 탈바꿈한 나사렛 성전은 앞으로 중등부 예배실로 쓰일 뿐 아니라 청년부와 청장년, 성인 교육을 위한 다목적 시설로 이용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리모델링 된 두란노 강의실은 100석 규모의 강의실로 츄즈라이프와 어번던트라이프 등 주일 성경 공부 프로그램의 강의 장소로 사용된다. 또, 저작권료를 지불한 악보가 보관되어 있는 통합 성가대 악보 보관실도 생겼다.
성도들의 헌신과 기도로 재탄생한 나사렛 성전은 한국교회 교육 공간의 선도적 모델로서 귀하게 쓰임 받고 있다.

박희윤 기자

"주차안내와 교회의 안전을 책임집니다"

〈기드온선교위원회〉



아직 어둠이 가지시 않은 새벽시간, 호렙산 기도회에 나오는 교인들을 교회 정문에서 가장 먼저 맞이하는 사람이 기드온선교회(위원장 박영노 장로) 회원들이다. 이들은 예배가 시작되기 30분 전부터 정해진 위치에서 교인들이나 차량들을 질서 정연하게 안내를 한다.
멀리 경기도 용문이나 인천, 별내 등 1시간 넘게 걸리는 곳에 살면서 호렙산기도회 기간에 빠지지 않고 누구보다 일찍 와서 봉사하는 회원들도 있으며, 교회에서 제공하는 기도회 차량을 타고 올 경우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워 매일 먼거리에서 택시를 타고 호렙산 기도회에 와서 봉사하는 회원도 있다.

기드온은 구약시대 인물로 처음에는 겁이 많고 연약하였으나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많은 미디안 군사를 물리치는 용맹스런 사사가 되었다.
2001년부터 시작된 기드온선교회는 이러한 기드온의 강직함을 본받아 단순히 주차안내 봉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질서유지, 목회자들의 안전과 대외홍보 등의 일도 한다.
박영노 장로는 "기드온 회원들에게는 항상 교회의 목회 방침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봉사해 주기를 권면한다. 회원 한사람의 행동이 교회 이미지에 좋게 평가되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기도 하기 때문에 겸손하게 섬기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떤 일을 하든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충성심으로 열심히 봉사하는 기드온 선교회원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현재 기드온 회원들은 주일 1부예배를 드리고 2부와 3부예배 주차안내를 한다. 2부예배의 차량이 어느 정도 정리된 시점인 9시 30분, 위원회 사무실에서 평가회를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 주차가 될 수 있는지 토론시간을 갖는다.

총무를 맡고 있는 김영기 권사는 "현재 40명의 회원이라 해도 실제 주일날 봉사는 15~20명 정도가 한다. 좀더 많은 인원이 하면 교인들에게 세심하게 봉사할 수도 있고, 시간대별로 조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가 있다. 체력적으로 힘들다고 생가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만큼 신앙심도 깊게 되고 기도응답의 체험도 더 하게 된다"고 하면서 교인들의 많은 동참이 있기를 희망하였다.

궂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교회의 크고 작은 행사에 솔선수범하여 앞장서 봉사하는 기드온 선교회원들이 있기에 교회질서도 안전하게 유지된다.

봉사자 문의 : 010-3529-9736

이득섭 기자

"거룩한 생활 루틴이 선발대회!"

<LFC 광림 청년부 호렙산 기도회>

광림교회 청년부는 6월 6일부터 40일간 진행되고 있는 제34회 호렙산 기도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청년부는 이번 호렙산 기도회를 통해 청년들이 거룩한 생활을 형성하고 세상 속에서 선데이 크리스천이 아닌 매일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청년부에서는 거룩한 생활 습관을 지키기로 결단하는 청년들을 모집하였고, 300명의 청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선발대회에는 참가비가 1만원씩 있었는데, 참가비의 30%는 취약계층(다문화가정)을 위한 선풍기 구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청년부 '거룩한 생활 루틴이' 선발대회에는 시상이 있습니다. 40일 완주는 대상, 20회 이상은 최우수상, 5회 이상은 우수상, 그리고 참가상이 있습니다. 출석 체크는 청년부의 네이버 밴드에서 매일 기도회 후 나에게 주신 말씀을 한 줄로 정리해 '댓글' 남기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토요일에는 속회별로 최대한 호렙산 기도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 키트를 준비하였습니다. '물과 마스크, 공동기도 제목카드'로 구성된 기도 키트를 가지고 충분한 기도 훈련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기도회를 마치고 속회별로 사회봉사관 5층에서 '모기바(모여서 기도하고 바람쐬자)'를 진행합니다. 매주 사전 신청을 받아서 예약이 확정된 속회의 경우, 대여된 장소에서 호렙산에서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며 교제를 나눕니다.

호렙산 기도회에 참여중인 이재민 형제는 "제 자신의 기도제목도 중요하겠지만 어렵고 어두운 길을 같이 걷고 있는 교회 성도분들과 청년부 동역자 분들이 이번 호렙산 기도회를 통해 어둠을 뚫고 주님이 비춰주시는 빛으로 향해 나아가시길 기대하며 기도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조수아 자매는 "올해도 새벽에 나와 만나주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귀한 호렙산 기도회에 참여할 수 있음이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공동의 기도제목과 개인의 기도제목을 가지고 40일간 새벽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응답의 역사를 보이실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모두 함께 기도로 어둠을 뚫고 빛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청년들이 이번 40일간의 호렙산에 오르며 말씀과 기도, 신앙의 기초를 집중 훈련하여 성령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사랑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진선규 전도사(청년부)

4~6세를 위한 <어와나 입단식> 열려

'활동'과 '성경암송' 통해 부끄러울 것 없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2022년 6월 5일, 미취학 아동을 위한 성경 교육 프로그램 어와나(AWANA) 입단식이 광림교회 사회봉사관 1층 샤이닝 키즈에서 개최되었다. 어와나는 '활동'과 '성경암송'을 기반으로 하는 성경교육 프로그램으로 디모데후서 2장 15절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Approved Workman Are Not Ashamed)"의 각 첫 글자를 따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광림교회는 어와나 프로그램 중 7~9세를 대상으로 한 Sparks, 10~13세를 대상으로 한 T&T를 11년째 운영해오고 있으며, 금번 개소식을 통해 4세를 대상으로 한 Puggles 와 5~6세를 위한 Cubbies를 도입했다. Cubbies의 주제가를 함께 배워보며 시작된 개소식은 김성산 목사의 대표기도와 임재철 목사의 설교를 통해 '믿음의 씨앗을 키우기 위한 말씀의 중요성' 에 대해 전달했다.

이번 프로그램에 사전등록한 25명의 4~6세 어린이들은 수여식을 통해 단원복과 가방을 지급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성실한 클럽원이 될 것을 선서했다.

이번에 단원이 된 김채은 어린이(6세) 는 "찬양하고 율동하는 게 재미있었어요" 라고 기쁨을 보였고 학부형인 김성현 성도(8교구)는 "아이가 또래 친구들이랑 같이 말씀 듣고 공동체 활동하는 게 참 좋죠. 지금 15개월인 동생도 네 살이 되면 언니랑 같이 활동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라며 기대를 보였다.

본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임재철 목사는 "청장년부 예배시간 동안 자녀들에게 체계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아이들이 좋아할 흥미로운 활동을 하기 위해 2년 전부터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해왔는데 시작하게 되어 감사하다", 면서도 "교육국 전도사님들과 힘을 모아 정식 출범은 했지만 부서의 부장님도 교사도 아직 없습니다. 아이들을 사랑과 말씀으로 돌봐주실 많은 분들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라고 덧붙였다.

어와나는 미국 시카고에서 1940년대에 시작된 청소년 사역으로, 한국에는 1983년 도입되었다. 복음중심, 성경암송, 흥미로운 복음전달, 예수그리스도를 섬기는 훈련, 리더십 개발이라는 5가지 사역원리를 기초로 매주 진행되는 정규 프로그램과 더불어 어와나 올림픽, 성경퀴즈대회, 각종 캠프 등을 운영한다.

광림교회에 도입된 4세 대상 Puggles는 자유놀이·말씀·색칠과 만들기 소그룹·찬양과 놀이로 진행되며, 5~6세 대상 Cubbies 는 환영·말씀·핸드북·게임으로 운영된다.

어와나 참여신청 및 교사 지원
문의: 광림교회 교회학교(02-2015-1178)

위선미 기자

신앙 간증

'One who planted Dream' (꿈을 심어주는 사람)

샬롬.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족분들에게 항상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광림교회 청년부 3교구에서 속장으로 섬기고 있는 이강현 청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중보기도를 통해 받게 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제게도 비전을 주세요!'

중,고등학교 시절 나의 기도의 대부분은 꿈을 찾는 기도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 하실까?'를 고민하며 예배 때 가장 앞자리에 앉아 보기도 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변에서 같이 기도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눈에 들어왔고 그때부터 나를 위한 기도 대신, 친구들을 향한 중보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나의 비전을 찾기 위한 기도의 응답은 중보기도가 되어 하나님을 향한 비전의 첫 걸음이 된 계기가 되었고, 더 나아가 감사한 기도의 응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비전을 향한 기도응답은 멈추지 않고 계속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비전을 찾길 원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셨고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상황과 여건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찾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며 고민하던 중에 작년 호렙산 기도회를 맞이하게 되었고 기도 중에 하나님은 제가 회사를 창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를 통하여 많은 청년들이 꿈을 품을 수 있게 하셨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저는 상상도 하지 못한 감사한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지난 호렙산 기도회를 통해 얻게 된 기도응답에 이어 올해 맞이하게 된 호렙산 기도회 기간 동안 저는 마음속에 소망을 품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는 로마서 말씀을 따라 나의 비전보다 주변의 비전을 향해 더 간절히 기도하려고 합니다.

'One who planted Dream'(꿈을 심어주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찾아가는 꿈. 그 '꿈을 심어주는 사람'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또 간증을 통해 새 힘 얻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이강현 속장(청년부)

목회현장

사랑과 기쁨 나누는 '예수님의 사랑방'

전선옥 목사
(광림사랑의집/강촌광림교회)

코로나로 일상의 어려움은 모두에게 찾아왔습니다.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요양원은 아직도 주 4회 검사를 진행하며, 코로나의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거센 광풍 중에 가족간의 감염으로 직원의 감염은 있었으나 어르신의 감염은 없었습니다.

광림노인전문요양원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진행되는 〈예수님의 사랑방〉은 어르신들에게 예배 외에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상의 기쁨을 나누며 활동하는 자리로 정규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 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담당 목사 역시 요양원에서 함께 생활하니 예수님의 사랑방은 코로나 중에도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4월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나비와 꽃으로 모빌을 만드는 활동을 했습니다. 5월에는 교회 마당에서 바람개비를 색칠하고 만들어 움직임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개비는 아름다운 꽃이 되었습니다. 바람에 돌아가는 바람개비를 보며 "이쁘다! 고맙다!" 말씀하시며 아이보다 더 환한 미소를 지으십니다.
허○○ 어르신은 휠체어에 앉은 몸이지만, 마음은 바람개비를 들고 뛰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람을 따라 빙그르르 도는 바람개비의 모습에 어르신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방은 매월 3일동안 각 생활동별 어르신 10명 내외, 직원 2~3명을 모십니다. 어르신들과 함께 절기 및 계절에 맞는 작품을 만들며 예수님과 일상의 기쁨을 나누고, 활동 후에는 간단한 간식을 만들어 먹습니다.
어르신들이 예수님의 사랑방에 오면 재미있고, 맛있는 음식과 즐거움이 있다고 좋아해 주십니다. 기분이 좋으니 옛노래 한 소절도 박수치며 부릅니다. 어르신들의 활동을 돕기 위해 오신 직원들도 예수님이 주신 기쁨을 함께 보며, 계속 찾고 싶은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쁨, 감사, 행복'의 3개 생활동 이름으로 "예수님과 기뻐요! 감사해요! 행복해요!"의 주제를 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연약한 몸과 마음의 형편이지만, 정성껏 돕는 직원들과 함께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사랑방에 둘러앉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방이 더 많은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나누도록 기도로 축복해 주세요!

광림서교회

복음을 전하는 〈가스펠 스타리아〉

지난 5월 광림서교회는 승합차량을 구입하였습니다. 교회의 예배와 모임, 많은 기관과 부서들이 차량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느꼈습니다. 지난해 10월, 온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며 준비했고, 크고 작은 정성의 손길을 모아 드디어 차량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차량이 출고 되기까지 기다림이 있었지만, 가장 필요한 때에 알맞게 출고되었습니다.
차량이 출고된 후, 서교회 경조회 및 임원들은 담임목사님께 축복기도를 받았습니다.
"새로 구입한 승합차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수고와 헌신으로 나아간 광림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을 채워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해주셨습니다.

담임목사님께서 기도해주신 것처럼 예배와 부서별 모임, 야외속회, 호렙산 기도회 차량운행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귀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온 성도님들이 기도하며 정성을 다해 준비한 차량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복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로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조아라 전도사(광림서교회)

광림북교회

청와대에서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다

지난 5월 19일, 광림북교회는 교우들과 함께 청와대를 방문하여, 대한민국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본당에서 대형버스를 배차해 주셔서 광림교회 버스를 타고 30여명의 교우들이 즐거운 봄소풍을 다녀왔습니다.
청와대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대통령 관저로 사용되었던 곳이지만,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모든 국민에게 개방되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되어 무척이나 반가운 마음입니다. 아직 모든 공간이 개방된 것은 아니지만, 역대 대통령들이 걸었던 그 길을 직접 두 발로 걸어보니, 느낌이 많이 새로웠습니다.
광림북교회 교우들과 함께 청와대 땅을 밟으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조용한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국방과 안보 등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광림북교회 교우들이 청와대를 방문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더욱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광림북교회 되기를 다짐해 봅니다.

정환명 권사(광림북교회)

21교구 속회

무너진 속회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감리 교단 부흥의 원천이 속회이다. 소그룹 속회는 가장 역동적이고 생명력 넘치며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임재를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공동체이다. 이처럼 소중한 속회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단되다가 21교구는 지난 5월 19일(목) 박영준 장로 댁에서 남성 연합 속회로 모였다.
이날 조성한 목사(7선교구)는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겔 36:33~38)는 제목으로 "정결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무너진 곳을 세우시며 적막한 곳을 회복시키신다. 우리가 기도해야 이루어 주신다" 라고 말씀을 전했다.

주어진 말씀을 바탕으로 20여년간 속회를 이끌어 온 박준식 권사는 "앞으로 코로나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속회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자"고 하며 대면 속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1교구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각 가정을 방문하여 돌아가며 예배 드린다.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각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중보기도한다.
한편, 생소하고 서먹하여 속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를 위해 2020년 1월 새 가족 남성 속회를 만들어 분화시켰다. 3명으로 시작하여 현재 18명으로 늘어났다고 하니 놀라운 부흥이다.
많은 교인들 중에서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이름을 불러주는 신앙 공동체가 속회이다. 교회의 부흥은 속회에서 시작된다. 속회를 통해 말씀을 연구,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고 실천하여 오직 그분의 은혜만을 구해야 한다. 기도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고 말씀으로 사랑을 전달하는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한다.

21교구 속회가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치유하는 영과 진리의 공동체가 되어, 어떤 전염병도 이겨서 승리하길 소망하며 기도한다.

김호근 권사(21교구)

아펜젤러 선교사-7

아펜젤러 선교사의 문서선교

아펜젤러 선교사는 배재학당을 개교한 후 출판과 문서선교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1887년 말 올링거(Franklin Ohlinger) 선교사를 조선에 초청하였습니다. 올링거 선교사는 조선에 파송되기 전 중국에서 16년간 선교사로 활동했으며, 출판과 교육 분야에서 많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올링거 선교사가 조선에 왔을 때, 그의 나이는 42세였기 때문에 20대 청년선교사였던 아펜젤러나 언더우드에게는 많은 경험을 전수해 줄 수 있었고, 그의 합류로 인해 많은 선교 사역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아펜젤러가 특별히 올링거 선교사를 초청한 데에는 그의 선교 경험을 배우고 동역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펜젤러와 올링거 선교사는 먼저 배재학당 지하에 우리나라 최초의 인쇄소인 삼문활판소를 설립했습니다. 삼문의 의미는 국문, 한문, 영문의 3가지 활자를 갖추었다는 뜻입니다. 이칭으로 삼문출판사, 미이미활판소(美以美活版所)라 불리기도 했는데, '미이미'는 'MEM(Methodist Episcopal Mission)'의 음역으로 우리말로는 '감리교활판소'라는 의미입니다. 삼문활판소(출판사)는 얼마 후 배재학당의 본관 서쪽 뒤편에 별도의 건물을 지어 인쇄소로 사용하였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책을 만드는 일을 학비가 없거나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맡겨서 자립정신을 길러주었으며, 또 실습을 통해 인쇄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제공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글학자 주시경도 배재학당 학생 시절 삼문출판사에서 일하며 학비를 벌었습니다.

삼문출판사에서는 정기 간행물인 'The Korean Repository', '죠선 그리스도인 회보', '그리스도신문', '신학월보' 등이 출판되었으며, 배재학당의 교과서는 물론 다른 학교의 교과서도 출판되었습니다. 기독교 서적으로는 아펜젤러가 쓴 전도용 문서인 '성교촬요', 교리서인 '미이미교회강례', 게일 선교사가 번역한 '천로역정' 등이 출판되었으며, 신약성경 번역본을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삼문출판사는 교파의 구별 없이 복음을 전파하고 조선의 근대화를 위해 많은 기독교 언론지, 서적, 성경과 찬송가를 출판했으며, 특별히 '독립신문'이 이곳에서 인쇄되었습니다.

아펜젤러의 복음전파와 조선의 근대화를 위한 선구자적인 시각은 출판과 문서선교를 통해 더욱 구체화 되었으며, 성서번역과 여러 출판물들을 통해 실제적인 열매를 맺었습니다. 또한, 영문 잡지와 여러 보고서를 통해 조선의 상황을 세계에 알리는데 큰 공헌을 했습니다.

권순정 목사(목회선교지원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5월 29일 주일, 2부와 3부예배에서 김정석 담임목사의 집례로 15명이 유아세례를 받았다.

최우영, (부)최해웅, (모)김나형

김로아, (부)김신일, (모)전혜성

박수아, (부)박진범, (모)김인의

김다해, (부)김평석, (모)이영재

박지원, 박성원, 박준원 (부)박지용, (모)권세라

김이서, (부)김성산, (모)천고은

김지훈, (부)김두식, (모)원지혜

이태오, 이태리, (부)이재하, (모)주소진

김영민, (부)김호대, (모)최현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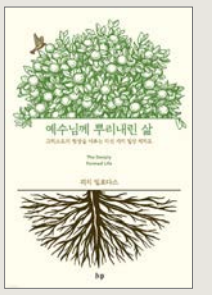
박두현, (부)박상훈, (모)박지윤

최예린, (부)최상원, (모)진한나

손명찬, (부)손세일, (모)최윤진

김정석 담임목사의 추천도서

책으로 쌓는 교양



[예수님께 뿌리내린 삶]

리치 빌로다스 지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분주함, 혼란, 적대감, 중독, 내면의 분노와 같은 현대 사회의 위험한 리듬에 내몰리고 있다. 그리스도에 의해 깊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다. 복음은 왜 현실 앞에 무력해 보이는가? 우리 삶에 복음의 능력이 깊이 뿌리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우리는 피상적 신앙을 넘어 예수님께 깊이 뿌리내리는 영성을 형성할 수 있을까?

저자는 복음의 현실 앞에 무력해 보이는 이유를 우리가 현대 문화의 피상성에 안주하도록 길들여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빈부 격차, 성차별, 인종차별, 이민자 혐오 등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목소리를 높여 온 저자는 일상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갈 실천적 방안들을 다섯 가지 핵심 제자도를 통해 제시한다.

[그리스도, 내 영혼의 힘]

필립 켈러 지음

인간은 고통 가운데 태어나며, 고통은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다. 특히 현대인들은 끊임없는 경쟁과 긴장,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불안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또한 감염병 시대를 살면서 결핍과 죽음에 대한 공포는 우리를 더욱 낙담하게 하고 우울증에 빠지게 한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디서 회복과 새롭게 됨과 생기를 찾을 수 있는가? 저자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기고 참된 평안에 이르는 길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혼의 힘과 심령의 평온함에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을 극복하는 영적 비결인 영혼의 힘과 심령의 평온함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임을 다시 돌아보고 마음에 새기도록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있다.

위 책들은 광림사회봉사관 1층 '빛의 숲' 서점에서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문의 : 목회선교지원실 02-2056-5730

한눈에 명화로 보는 신약성경 이야기 10

예수 그리스도의 열두 제자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상징한다. 예수의 공생애 사역은 열두 명의 제자를 찾는 일로부터 시작되었다. 어느 날 예수는 홀로 산에 올라가 밤을 지새우며 기도한 후 열두 제자를 선택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열두 제자는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다대오라고도 불리는 유다, 그리고 빌립, 바돌로매, 도마, 세리 마태, 가나안 사람 시몬, 가룟 유다이다. 광림뉴스레터

▲ **베드로**_ 열정적인 성격의 갈릴리 어부 시몬은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받으며 열두 제자 중 수제자로 초기 기독교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으며 로마에서 순교했다.
루벤스 작품

▲ **안드레**_ 베드로의 동생으로 온건하고 신중한 성격으로, 한 사람씩 전도하는 '한 영혼의 전도자'로 불리며 열두 사도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안톤 반 다이크 작품

▲ **요한**_ 예수님의 총애를 받은 제자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로부터 어머니 마리아를 돌봐 달라는 부탁을 받은 제자이다. 큰 야고보의 형제로 '사랑의 사도'로 불린다.
루벤스 작품

▲ **야고보**_ 요한의 형으로 '변화산의 영광'을 목격할 만큼 예수의 신뢰를 받은 제자다. 열두 제자 중 최초의 순교자이며 스데반 집사에 이은 두 번째 순교자다.
루벤스 작품

▲ **빌립**_ 신중한 완벽주의자인 빌립은 나다나엘(바돌로매)을 전도했으며, 소아시아 중심으로 라오디게아, 골로새 등에서 전도하다 히에라폴리스에서 순교했다.
후세페 데 리베라 작품

▲ **바돌로매**_ 제자들 중 가장 교육을 많이 받고 정직, 성실했던 그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고 했지만 예수를 만난 후 영접하고 브르기아, 인도에서 복음을 전했다.
후세페 데 리베라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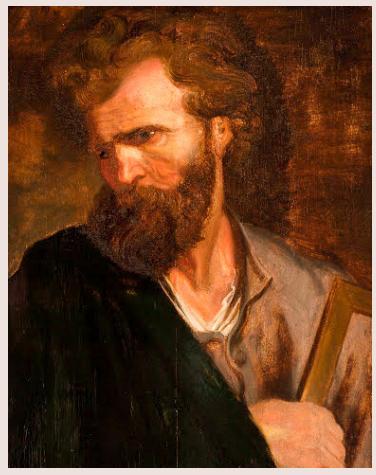
▲ **도마**_ 열정적이고 이성적인 도마는 '의심 많은 사도'였지만 부활의 예수를 만나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 인도로 선교를 떠난 후 순교했다.
조르주 드 라 투르 작품

▲ **마태**_ 세리였던 그는 오순절 성령의 세례를 받은 후 사도의 직분을 감당했다. 유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 동방으로 가서 에티오피아나 페르시아에서 순교했다.
안톤 반 다이크 작품

▲ **야고보**_ 알페오의 아들 '작은 야고보'는 어린시절부터 엄격한 신앙 생활과 경건한 수양, 기도생활로 그의 무릎이 낙타의 발바닥처럼 되었다고 한다.
루벤스 작품

▲ **시몬**_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시킬 메시아를 고대하던 열심당원 시몬은 예수를 영접하고 소아시아, 북아프리카, 바벨론 등에서 전도하다 페르시아에서 순교했다.
루벤스 작품

▲ **다대오 유다**_ 유다서 저자이며 작은 야고보 형제 유다는 오순절 성령강림 이후 시몬과 함께 시리아, 메소포타미아에서 복음을 전하다 페르시아에서 순교했다.
발렌시아 야티바 작품



▲ **가룟 유다**_ 예수께 선택 받은 열두 제자 중 한사람이었지만, 최고의 죄인이자 사탄의 하수인으로 은화 30세겔에 예수를 판 그는 구원 받지 못한 사도가 되었다.
안톤 반 다이크 작품

※ 게재된 글의 저작권은 출판사 아이템하우스에 있으며 광림뉴스레터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편집인 유용찬 | 위원장 박영준 | 편집디자인 유심원 | 후원 남선교회총연합회 실업인선교회
기자 | 김옥이 김혜경 박신애 박희윤 백명순 변영혜 소현수 신희경 안미영 유병권 위선미 이득섭 이상희 이선아 이정순 | 편집 문화홍보실 | 인쇄 현대원색문화사
www.klmc.church에서 e-book 또는 https://www.facebook.com/kwanglimchurch으로 광림뉴스레터를 볼 수 있습니다